

기혼여성의 행복은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가?^{*}

- 생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

How does the Happiness of Married Women Differ by Generation?
- Focusing on the Impact of Time Allocation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김주희^{***}

Dept.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Lee, hyunah
Dept.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Lecture Kim, Joo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생활시간의 배분과 균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기혼여성이 느끼는 행복의 단면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세대별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보고,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기혼여성의 행복을 시간차원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행복을 느끼는 정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행복에는 의무시간인 주업시간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Y세대의 행복에는 돌봄필요가구원 여부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봉사 및 여가시간에 따라, Y세대는 성역할태도에 따라 행복수준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시간관점에서 기혼여성이 느끼는 행복수준이 세대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영향요인 또한 세대와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는 기혼여성 대상 가족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키워드: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행복, 기혼여성, 생활시간, 시간배분

〈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allocating and balancing time use as an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life, and attempted to analyze the happiness of married women through the perspective of satisfaction with time use. We investigated the structure of time use,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happiness in the perspective of time use through the Time Use Survey data. Analyzing the happiness of married women, we found out that the level of happiness and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varied by generation. In the case

*본 연구는 2023 생활과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임.

**주저자: 이현아(leehyunah@mail.knou.ac.kr), <https://orcid.org/0000-0001-7835-3322>

***교신저자: 김주희(heeya214@snu.ac.kr), <https://orcid.org/0000-0002-4587-0582>

of economically active women, the happiness of baby boomers and Generation X was mostly impacted by mandatory work hours, while the happiness of Generation Y was mostly impacted by the presence of care-dependent people. However, in the case of economically unactive women, the happiness of baby boomers and Generation X was mostly impacted by leisure and volunteering time that could be used freely, while the happiness of Generation Y was mostly impacted by the attitude toward gender roles. Therefore, through the perspective of time use, the happiness and the factors determining the happiness of married women differs by generation and economic activeness.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family policies for married women.

Key words: Baby Boom generation, Generation X, Generation Y, Married women, Happiness, Time use survey, Time allocation

I. 서론

시간은 대표적인 가족자원의 하나로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시간자원의 '유한성'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특징으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일상이 달라진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의 시간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이기영·김외숙, 2002).

인간의 일상생활은 시간의 사회성과 일상성이라는 두 속성에 의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2008).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반복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해 준다. 즉, 일상생활 시간의 구성은 삶에 대한 자유 및 통제, 삶의 균형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만족 및 행복 등의 주관성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사회성을 띄는 의무시간인 유급노동시간이 많거나 반대로 비공식적이면서 자율성이 높은 여가시간이 너무 많으면 욕구충족 및 삶의 불균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삶에 대한 만족 및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의무시간인 유급노동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권진·박수빈·김진욱, 2021; 이진우·금현섭, 2020; 주은선, 2016) 자유재량의 여가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중순·오세숙·윤소영, 2016; 김중순·오세숙, 2018)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과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행복과 부적인 관계, 여가시간은 행복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권진 외, 2021).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삶의 만족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적 비례 관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를 하거나 시간제 근로자에 종사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의 정규근로자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종호, 2022).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재량의 여가시간도 마냥 많다고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자유시간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자유시간이 적은 사람들은 중간 정도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아 행복감이 낮아졌지만, 자유시간이 과다한 그룹도 중간 그룹보다 행복감이 낮았다. 자유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이 좋아지다가 하루 2시간을 넘어서면서 정체상태를 보이며, 5시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행복감이 줄어드는 역U자 곡선을 보인 것이다(한겨레, 2021). 즉,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지나치게 적거나 지나치게 많은 것 보다 일과 여가가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 '워라벨세대'라는 트렌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김난도 외, 2017).

통계청 사회조사의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결과에서도 이러한 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조사 때만 하더라도 '일을 우선시' 하는 비율이 53.7%로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비율 34.4% 보다 20%정도 높았던 것이, 2019년 처음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일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을 앞질렀고, 2021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8.2%와 33.5%로 그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통계청, 2021). 이는 우리사회가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시간의 배분과 균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생활시간구조는 무엇보다 성과 연령,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취업형태별로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데, 이는 남녀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점차 늘고 있고, 특히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

한 연구(이현아·김주희, 2021)에서 보면 젊은 Y세대 남성들은 전통적 성역할태도에서 벗어나 요구와 시간이 있을 경우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노동과 돌봄에 있어서 성불평등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이현아·김은정·김유경, 2022), 남성과 여성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구조의 세대별 차이에 주목하고, 그러한 차이가 삶의 만족이나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워라벨 트렌드와 성역할태도의 변화가 기혼여성의 일상 생활에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제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것이 삶의 만족이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이자 중요한 목적 함수로서(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개인이 삶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 및 안녕의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행복의 개념을 정의할 때, 행복을 인간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인지, 경험에 의한 결과로 볼 것인지 또는 행복의 원인을 외적인 상황에서 찾은 것인지 내적인 상황에서 찾은 것인지 등 매우 복잡하다. 행복이라는 개념을 측정할 때에도 소득, 소비, 교육과 같은 물리적 조건에 초점을 둘 것인지 또는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주관적 효용의 총합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문마다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행복의 개념을 논의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행복을 분석한 World Happiness Report(John et al., 2023)는 행복점수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건강기대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삶을 선택할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 포용성(Generosity), 부패지수(Perception of corruption)의 6가지 요소의 점수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을 내적·외적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구재선·서은국, 2011)에 따르면 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원 및 인정,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정치, 문화 환경, 종교, 이타심,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외모, 건강의 요인들이 행복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에 주안점을 둔 연구에 따르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역할태도, 돌봄자녀

유무는 삶의 만족감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수진(2016)의 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다 다시 증가하는 U자형 모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증가는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이진우·금현섭, 2021; 이재희 외, 2019), 성역할태도는 부인이 남편과 동일한 평등적 성 역할 인식을 갖는 경우 그 자체로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전통적인 유형에 비해 긍정적이며,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커질수록 갈등적인 성 역할 인식을 갖는 것별이 여성은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우·금현섭, 2021). 또한 돌봄자녀의 유무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이재희 외(2019)의 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한 결과 유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들이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며, 개인 여가 시간 및 부부 시간이 확연히 줄었으며 출산 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일여가유형에 따른 행복수준을 연구한 권안나(2021)는 일과 삶의 균형은 행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행복수준에 객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밝혔다. 즉, 일중심형에서 객관적인 요소가 행복에 중요한 요소였던 반면 여가중심형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만족감이 행복의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행복을 주관적 효용의 총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에서는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 삶의 질,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 웰빙 등의 개념들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행복 조사를 위한 다차원적 기준에 초점을 두고, 행복을 삶의 만족도(life evaluations), 감정(affect), 유다이모니아(eudaimonia)의 3가지의 다차원적인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이태진 외, 2021). 삶의 만족은 일, 건강, 소득의 영역별 만족감을 반영하고, 정서는 행복감, 걱정, 화의 감정을, 유다이모니아는 삶의 의미와 목적, 주도적 삶, 역량을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주관적 웰빙, 혹은 행복에 대해 소득이나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고용상태, 성격,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이태진 외, 2021).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목표로 추진된 'OECD 보다 나은 삶 계획(OECD Better Life Initiative)'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ve Index, BLI)를 제시하였는데, 이 지수를 행복의 지표로 볼 수도 있다. BLI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물질적 생활 조건, 삶의 질, 지속가능성의 세 축으로 구성되는데, 물질적 생활 조건은 주거, 소득과 자산, 직업과 소득의 3가지 측정 영역으로, 삶의 질은 건강, 일과 삶의 조화, 교육과 기술,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사회적 관계, 환경의 질, 개인의 안전, 주관적 안녕의 8개 측정 영역으로, 마지막 지속 가능성은 미래 웰빙(well-being)을 위한

자원으로서 자연 자본,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OECD, 201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는 행복의 개념 중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주관적 효용의 총합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행복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효용의 총합으로 볼 때, 개인의 주관적 효용의 총합은 삶의 만족도로 가늠할 수 있는데, 특히 본 연구는 생활시간의 배분과 균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행복의 단면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에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포함된 시간사용과 관련된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의 총합을 생활시간 관점의 행복 척도로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생활시간 조사는 하루 24시간에 대한 시간사용 형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이현아 외, 2022).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필수생활시간(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의무생활시간(일과 가사노동 등), 여가생활시간(자원봉사 및 교제, 문화활동 등)으로 배분된 생활시간구조에 대한 기본적 자료 뿐 아니라, 생활시간 배분 및 사용에 대한 결과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건강에 대한 만족도,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여가에 대한 만족도, 시간사용의 부족감)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만족도를 활용하여 생활시간관점에서 행복 척도를 구성하고, 내외적 요인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역할태도, 돌봄필요가구원여부, 생활시간이 기혼여성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대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행복과 생활시간의 관계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자원이다. 시간 자원은 누구에게나 매일 하루 24시간이라는 양이 주어지며, 주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조절할 수 없는 유한성, 저장되지 않는 저장불가능성, 인간의 의지나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는 연속성, 다른 자원을 사용할 때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결합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홍성희 외, 2008). 모두에게 이와 같은 특성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생활시간은 필수시간, 의무시간인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자유시간인 여가시간으로 구성된다. 필수시간은 수면,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생리적 시간이라고도 불리운다. 필수시간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필수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행복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적절한 필수시간은 개인의 에너지를 재생산하여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으로 이는 삶의 만족 및 행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급노동시간은 의무가 부여된 시간으로서,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급노동시간과 시간압박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차승은, 2014)에서 노동시간이 길수록 시간압박을 강하게 받았으며, 노동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주은선, 2016)에서도 노동시간이 길고 휴가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저하되었으며, 맞벌이 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이진우·금현섭, 2020)에서도 노동시간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이었다.

또 다른 의무시간인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의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맞벌이 집단을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생활시간배분을 살펴본 연구(김의숙 외, 2016)에서 근무일과 비근무일에 상관없이 여성의 긴 가사노동시간은 가사노동분담만족도가 낮은 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가용시간 대비 가사노동시간의 비중을 측정하여 맞벌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이진우·금현섭, 2020)에서도 가사노동비중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이었다.

여가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가족·여가활동 시간비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서경험을 분석한 연구(장미나·한경혜, 2015)에 따르면 여가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여가몰입형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과 여가균형 정도에 따라 여가생활만족 및 행복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김종순·오세숙, 2018)에서도 여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여가생활만족과 행복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무시간인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삶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유재량시간인 필수시간과 여가시간의 증가는 삶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한 생활영역에 치우친 시간배분 특히 의무시간이 많고 자유시간이 적은 생활은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는 삶에 대한 만족 및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여가에 대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신아름·이상직, 2021), ‘적극적 여가 증시형’, ‘일·여가 동시 증시형’, ‘일·여가 관계 미정립형II’, ‘일·여가 관계 미정립형 I’, ‘소극적 여가 증시형’ 순으로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생활시간 사용의 형태를 통해 주관적 만족을 연구한 은기수 외(2015)의 연구에서도 일집중형 보다 자유시간이 많은 여가집중형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인지하고 평가하는 시간부족감, 가사분담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에 서도 일집중형 보다 여가집중형이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rgy, Wu & Seligman(2002)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the pleasant life), ‘만족스런 활동에 고도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는 것’(the engaged life), ‘보다 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경험하는 것’(the

meaningful life)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내용에 ‘균형있는 생활을 하는 것’(the balanced life)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윤소영, 2013, 재인용). 즉, 균형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시간자원의 측면에서 균형있는 삶은 시간자원이 가지는 유한성과 제로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균형’의 관점이 보다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균형있는 시간의 배분 및 균형있는 삶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기혼여성의 행복을 생활시간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세대구분 및 특성

세대는 동일시기에 출생한 개인들이 동질적인 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물학적 동질성 외에 역사적 동질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한 ‘세대’로서 특성을 가진다(박시내·심규호, 2010). 이러한 세대별 특성은 삶의 가치관과 태도, 일상생활과 소비행동, 가족관계와 역할 등 전반적인 삶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1954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데, 전후 대규모로 출생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로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는 가족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소홀했던 세대이다. X세대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태어나 물질적,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집단으로, 집단적 사고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개인주의를 받아들인 세대, 소비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기 시작한 세대로 ‘영포타’라는 새로운 중년의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Y세대는 1980년에서 1995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로서 ‘에코 부머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Y세대는 밀레니얼세대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우선시하고, 자기계발과 개성지향의 소비

를 하며, 전통적인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거부하고 동반자적 의식의 부부관계를 지향한다(이현아 외, 2022).

이처럼 세대로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성장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세대’를 의미있는 영향 요인으로 보고 분석한 바 있다.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양상의 변화를 살펴본 이현아와 김주희(2021)의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을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구분하여 각 세대별 가사노동 참여요인을 가사노동 참여가설에 근거해 분석하였는데, 세대로 가사노동참여의 동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성과 남성의 세대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1999-2019)를 살펴본 서지원, 기은광과 고선강(2021)의 연구에서도 성별차이 뿐만 아니라 세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상에서 느끼는 주관적 효용으로서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 행복이 세대로 다를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생활시간배분과 균형의 관점에서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기혼여성이 느끼는 행복이 세대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건과 경험을 공유한 동시대 집단인 세대의 특성이 삶에 대한 태도 및 방식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만족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세대별 차이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연구대상은 베이비붐세대(1954-1964)/X세대(1965-1979)/Y세대(1980-1995) 기혼여성이다. 세대 중 생활시간사용의 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비농가와 배우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기

〈표 1〉 세대구분 및 특성

구분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출생시기	1954-1964	1965-1979	1980-1995
주요사건	- 유신시대 - 광주민주화운동 - 고도의 경제성장	- 6.29민주화 - 물질적·경제적 풍요 - 외환위기	- 민주화 정착 - 국제금융위기와 저성장 - 국제화와 정보화 -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특징	- 국가(자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성장 동력 - 부모와 자식 모두 부양 - 나는 없고 가족만 있음 - 자신의 노후준비 소홀	- 개인주의적 지향 - 소비를 통해 자아 표현 -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	-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 - 자신의 필요와 만족 우선 - 자기계발과 개성지향 소비 - 동반자적 의식을 가지고 부부 가사분담

출처 : 이현아 외(2022)

혼여성을 추출하였다. 배우자가 같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같이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생활시간의 구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기혼여성만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휴가 및 휴직을 했다고 응답한 기혼 여성은 제외하고 일을 하였음 또는 일을 하지 않았음이라고 응답한 기혼여성만을 포함하였다. 일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분류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시간으로 인한 생활시간구조가 크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대상자를 경제활동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가 자신이 한 행동을 10분 단위로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조사된 자료로서, 국민의 하루24시간의 활용 형태 파악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사용 파악을 통해 기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대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자료 중 주행동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베이비붐세대 2,540개, X세대 4,818개, Y세대 2,920개이다.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구조 살펴보기 위해 개인유지시간, 유급노동시간, 학습시간, 가사노동시간, 봉사 및 여가시간의 평균시간을 분석하였다. 둘째, 세대별 행복수준의 차이 및 행복을 구성하는 여가만족도, 건강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세대별 기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간의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과 노동시간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과 하지 않는 기혼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구성

기혼여성의 행복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된 변수로 행복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행복의 측정지표로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된 주관적 인식의 척도 중 건강만족도, 여가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시간부족감의 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권진 외(2021)의 연구에서는 행복을 시간부족감, 삶의 만족, 여가만족을 합산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기혼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건강만족도, 여가만족도, 시간부족감 뿐만 아니라 가사분담만족도까지 포함하여 행복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된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역할태도, 돌봄가구원 유무로 하였으며, 생활시간은 필수시간(개인유지시간), 의무시간(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자유시간(봉사 및 여가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행복	여가만족도+건강만족도+가사분담만족도+시간부족감	
종속변수	여가만족도	1=매우불만족, 2=약간불만족, 3=보통, 4=약간만족, 5=매우만족
	건강만족도	1=매우불만족, 2=약간불만족, 3=보통, 4=약간만족, 5=매우만족
	가사분담만족도	1=매우불만족, 2=약간불만족, 3=보통, 4=약간만족, 5=매우만족
	시간부족감	1=항상부족, 2=부족, 3=여유, 4=항상여유
	교육수준	연속변수
독립변수	소득수준	연속변수
	성역할태도	'귀하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적극찬성, 2=찬성, 3=반대, 4=적극반대
	돌봄필요가구원유무	0=돌봄필요가구원 또는 10세미만가구원이 없는 경우 1=돌봄필요가구원 또는 10세미만가구원이 있는 경우
	필수시간	개인유지시간
	의무시간	유급노동시간 주업시간(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시간) : 회귀분석 시 유급노동시간 대신 주업시간 변수 사용 가사노동시간
자유시간	봉사 및 여가시간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을 먼저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세대별로 나누어 생활시간구조와 시간관련 행복수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생활시간구조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여부에 따라서 생활시간 배분과 사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여부별,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우선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중 고졸이아가 45.2%, 소득수준 100-200만원미만이 44.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73.7%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돌봄필요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93.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변수		세대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		
			베이비붐세대 (n=1506)	X세대 (n=3046)	Y세대 (n=1538)	베이비붐세대 (n=1034)	X세대 (n=1772)	Y세대 (n=1382)
			(단위:N(%))					
교육 수준	중졸이하	558(37.1)	96(3.2)	18(1.2)	350(33.8)	70(4.0)	8(0.6)	
	고졸이하	680(45.2)	1284(42.2)	274(17.8)	494(47.8)	690(38.9)	280(20.3)	
	대졸이하	222(14.7)	1450(47.6)	1106(71.9)	170(16.4)	924(52.1)	1010(73.1)	
	대학원이상	46(3.1)	216(7.1)	140(9.1)	20(1.9)	88(5.0)	84(6.1)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454(30.1)	590(19.4)	290(18.9)	-	-	-	
	100-200만원미만	676(44.9)	1246(40.9)	480(31.2)	-	-	-	
	200-300만원미만	232(15.4)	694(22.8)	498(32.4)	-	-	-	
	300-400만원미만	48(3.2)	220(7.2)	168(10.9)	-	-	-	
성역할태도	400만원이상	96(6.4)	296(9.7)	102(6.6)	-	-	-	
	전통적	396(26.3)	400(13.1)	146(9.5)	388(37.5)	472(26.6)	226(16.4)	
돌봄필요가 구원유무	근대적	1110(73.7)	2646(86.9)	1392(90.5)	646(62.5)	1300(73.4)	1156(83.6)	
	돌봄필요가구원 있음	92(6.1)	556(18.3)	1074(69.8)	84(8.1)	518(29.2)	1166(84.4)	
	돌봄필요가구원 없음	1414(93.9)	2490(81.7)	464(30.2)	950(91.9)	1254(70.8)	216(15.6)	

로 X세대를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베이비붐세대와 유사하게 고졸이하가 47.6%, 소득수준은 100-200만원미만이 40.9%로 가장 많았다. 성역할태도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기혼여성이 86.9%로 베이비붐세대 보다 많았다. 돌봄필요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30.2%, 돌봄필요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69.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Y세대는 베이비붐세대, X세대와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였다. 대졸이하가 71.9%, 소득수준은 200-300만원미만이 32.4%로 다른 두 세대에서 고졸이하와 100-200만원미만 소득수준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성역할태도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기혼여성이 90.5%로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돌봄필요가구원이 있는 기혼여성도 69.8%로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는 고졸이하가 47.8%,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기혼여성 62.5%, 돌봄필요가구원이 없는 경우 91.9%로 가장 많아,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과의 비

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X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에서 고졸이하가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X세대 기혼여성에서는 대졸이하가 52.1%로 가장 많았다. 기혼여성의 73.4%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돌봄필요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29.2%로 경제활동을 하는 X세대 기혼여성과의 비

2. 세대별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조

세대별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세대별 생활시간구조는 하루 24시간으로 구성된 개인유지시간, 유급노동시간, 학습시간, 가사노동시간, 봉사 및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세대별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조

경제활동 유무 및 세대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		
		베이비붐세대 (n=1506)	X세대 (n=3046)	Y세대 (n=1538)	베이비붐세대 (n=1034)	X세대 (n=1772)	Y세대 (n=1382)
		(단위:분)					
생활시간	필수시간	689	693	707	722	721	713
	유급노동	345	304	292	13	7	3
	학습	1	4	6	4	16	16
의무시간	가사노동	164	200	239	303	355	458
	가정관리	155	169	140	274	280	229
	돌봄	10	31	99	28	75	229
자유시간	봉사및여가	241	238	197	398	342	251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조를 세대별로 살펴본 결과, 세대별로 상이한 생활시간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조는 개인유지시간을 제외하고 유급노동시간이 5시간 45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가시간이 4시간 1분으로 많았으며, 돌봄시간은 10분으로 전체생활에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X세대는 유급노동시간 5시간 4분, 봉사 및 여가시간 3시간 58분, 가사노동시간 3시간 20분 순으로 많았으며, 가정관리시간이 2시간 49분으로 가사노동시간의 3분의 2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급노동시간이 4시간 52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59분으로 그 중 가정관리시간이 2시간 20분, 돌봄시간이 1시간 39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봉사 및 여가시간은 3시간 17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을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의무시간(유급노동+가사노동시간)은 Y세대>베이비붐세대>X세대 순으로 많았으며, 개인의 자유시간(봉사 및 여가시간)은 베이비붐세대>X세대>Y세대 순으로 많았고, 필수시간(개인유지시간)은 Y세대>X세대>베이비붐세대 순으로 많았다. 즉, 베이비붐세대는 자유시간이 가장 많고 필수시간이 가장 적은 반면, Y세대는 의무시간과 필수시간이 가장 많고 자유시간이 가장 적은 생활시간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는 봉사 및 여가시간이 6시간 38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사노동시간이 5시간 3분으로 많았다. 한편 X세대는 가사노동시간이 5시간 55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봉사 및 여가시간이 5시간 42분으로 많았는데, 특히 가정관리시간이 4시간 40분으로 가사노동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Y세대도 X세대와 동일하게 가사노동시간이 7시간 38분, 봉사 및 여가시간이 4시간 11분 순으로 많았고, 특히 가사노동시간에서 가정관리시간과 돌봄시간이 각각 3시간 49분으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의무시간(가사노동시간)은 Y세대>X세대>베이비붐세대 순으로 많았으나, 자유시간(봉사 및 여가시간)과 필수시간(개인유지시간)은 베이비붐세대>X세대>Y세대 순으로 많았다. 베이비붐세대가 자유시간과 필수시간이 가장 많고 의무시간인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것에 반해, Y세대는 의무시간이 가장 많고 자유시간과 필수시간이 가장 적은 생활시간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3. 세대별 기혼여성의 행복의 차이

기혼여성의 행복수준의 세대별 차이와 행복의 척도를 이루고 있는 여가만족도, 건강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시간부족감의 세대별 차이도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행복과 행복을 구성하는 여가만족도, 건강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시간부족감 요소의 세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여가에서 만족하고 시간부족감을 덜 느끼며, X세대는 여가시간사용과 건강에서, Y세대는 가사분담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수준은 X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Y세대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행복, 여가만족도, 건강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세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여가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에 대해 더 만족하였으며, Y세대는 건강과 가사분담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에서 X세대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던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Y세대의 행복수준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과 동일하게 모든 세대에서 가장 낮았다.

세대별 기혼여성의 행복의 차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 모두에서 Y세대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 시기의 부모의 행복, 삶의 질을 진단한 연구에서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낮다는 선행 연구결과(육아행복 국제비교,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행복은 생애주기에 따라 40대에 최저점을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을 패턴을 가지는 것(심수진, 2016; 이태진 외, 2021)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현재 40대 전후인 Y세대의 행복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참고)

4. 세대별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한 10개의 설명변수 상관분석과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earson's의 상관관계는 $r < .80$ 미만으로 검증되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이 10 미만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모두 10미만으로,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5> 기혼여성의 행복수준의 세대별 차이

행복 및 만족도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			
	경제활동 유무 및 세대 베이비붐세대 (n=1506)	X세대 (n=3046)	Y세대 (n=1538)	F	베이비붐세대 (n=1034)	X세대 (n=1772)	Y세대 (n=1382)	F
행복	11.27 ab	11.37 b	11.17 a	3.679*	12.80 c	12.44 b	11.87 a	49.913***
여가만족도	2.93 b	2.99 b	2.82 a	15.300***	3.44 c	3.31 b	3.01 a	71.535***
건강만족도	3.30 a	3.38 b	3.33 ab	5.930**	3.31 a	3.34 ab	3.38 b	3.028*
가사분담만족도	2.95 a	3.01 a	3.23 b	28.344***	3.21 ab	3.15 a	3.29 b	7.337**
시간부족감	2.09 c	1.99 b	1.79 a	55.113***	2.85 c	2.63 b	2.20 a	190.329***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역할태도	돌봄필요 가구원 여부	주업시간	개인유지 시간	가사노동 시간	봉사 및 여가시간	행복
교육수준	1								
소득수준	.218**	1							
성역할태도	.222**	.234**	1						
돌봄필요가구원여부	.301**	-.038**	.142**	1					
주업시간	-.136**	.280**	.070**	-.108**	1				
개인유지시간	-.015	-.052**	-.032**	-.044**	-.050**	1			
가사노동시간	.135**	-.353***	-.020*	.418**	-.330**	-.141**	1		
봉사 및 여가시간	-.052**	-.217**	-.143**	-.222**	-.238**	-.046**	-.102**	1	
행복	.041**	-.092**	-.185**	-.130**	-.164**	.097**	-.036**	.252**	1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변수	VIF	변수	VIF
교육수준	1.165	주업시간	1.302
개인소득	1.276	개인유지시간	1.012
성역할태도	1.035	가사노동시간	1.124
돌봄필요가구원여부	1.012	봉사및여가시간	1.116

1)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베이비붐세대는 돌봄필요가구원여부를 제외한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역할태도(-), 주업시간(-), 개인유지시간(+), 가사노동시간(-), 봉사여가시간(+가 유의미하였으며, X세대는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였다. Y세대는 소득수준(+), 돌봄필요가구원여부(-), 주업시간(-), 개인유지시간(+), 가사노동시간(-), 봉사여가시간(+가) 유의미하였다.

모든 세대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증가하고,

의무시간인 주업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적을수록, 필수시간인 개인유지시간이 많고 봉사여가시간이 많을수록 행복수준이 증가하였다. 성역할태도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에서 유의미한 반면 Y세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가장 젊은 세대인 Y세대에서는 성역할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봄필요가구원여부는 베이비붐세대에서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에는 주업시간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봉사 및 여가시간, 성역할태도 순이었다. X세대의 행복에도 베이비붐세대와 동일하게 주업시간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성역할태도, 봉사 및 여가시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세대의 행복에는 다른 세대와 달리 돌봄필요가구원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업시간, 소득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행복에는 의무시간인 일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반면, Y세대의 행복에는 일하는 시간 보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의 존재여부가 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베이비붐세대 (n=1506)		X세대 (n=3046)		Y세대 (n=1538)	
	B	β	B	β	B	β
교육수준	.240**	.078	.414***	.113	.073	.018
소득수준	.179**	.079	.142**	.068	.237***	.114
성역할태도	-.301***	-.103	-.409***	-.123	-.133	-.040
돌봄필요가구원여부	-.093	-.009	-.448***	-.071	-.714***	-.142
주업시간	-.040***	-.264	-.025***	-.145	-.023***	-.135
개인유지시간	.001*	.050	.001**	.045	.001**	.074
가사노동시간	-.001**	-.072	-.002***	-.108	-.002***	-.113
봉사여가시간	.002***	.104	.002***	.115	.002***	.103
R ²	.108***		.085***		.094***	

* $p < .05$, ** $p < .01$, *** $p < .001$

〈표 9〉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베이비붐세대 (n=1034)		X세대 (n=1772)		Y세대 (n=1382)	
	B	β	B	β	B	β
교육수준	.251**	.086	.398***	.112	.144	.030
성역할태도	-.404***	-.155	-.529***	-.184	-.699***	-.218
돌봄필요가구원여부	-1.069***	-.134	-.831***	-.164	-.595**	-.089
개인유지시간	.003*	.148	.002***	.128	.002*	.113
가사노동시간	.000	.028	.001	.071	-.001	-.052
봉사여가시간	.003**	.214	.003***	.223	.003***	.188
R ²	.090***		.111***		.144***	

* $p < .05$, ** $p < .01$, *** $p < .001$

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행복에는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하고 교육수준(+), 성역할태도(-), 돌봄필요가구원여부(-), 개인유지시간(+), 봉사여가시간(+),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Y세대의 행복에는 성역할태도(-), 돌봄필요가구원여부(-), 개인유지시간(+), 봉사여가시간(+),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모든 세대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기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는 봉사 및 여가시간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성역할태도, 개인유지시간으로 나타났다. X세대의 행복에는 베이비붐세대와 동일하게 봉사 및 여가시간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성역할태도, 돌봄필요가구원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Y세대의 행복에는

다른 세대와 달리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봉사 및 여가시간, 개인유지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Y세대 기혼여성들의 실제 생활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덜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활시간사용 관점에서 기혼여성의 세대별 행복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해 보았다. 특히 생활시간은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시간배분구조의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기혼여성의 세대별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보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았다. 기혼여성의 행복을 시간차원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행복을 느끼는 정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세대별 행복수준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X세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베이비붐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Y세대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 모두 낮게 나타났다. 현재 Y세대는 돌봄의 요구가 많은 시기로 의무시간이 많고 자유재량시간이 적은 생활시간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생활시간사용 관점에서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도 세대로 차이가 나타났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세대로 살펴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행복에는 의무시간인 주업시간의 영향력이 가장 큰 반면, Y세대의 행복에는 돌봄필요가구원 여부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경우 가구 내 돌봄 요구가 많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내의 요구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Y세대의 경우 돌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로 돌봄필요가구원의 여부가 행복 수준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간자원을 배분할 때, 행복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반면, Y세대는 돌봄부담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과 돌봄의 두가지 요구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때, 행복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행복수준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반면, Y세대는 성역할태도가 행복수준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기혼여성은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와 마찬가지로 시간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행복수준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Y세대 기혼여성의 경우 시간자원의 영향보다는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특징적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개인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시간 확보에 따라 행복수준이 크게 좌우되는 반면, Y세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태도와 실제 생활의 차이에 따라 행복수준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Y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수준이 성역할태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고정관념에 반대할수록 행복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20)에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의 증가가 특히 30대(68.4% → 81.6%)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이분법적 성역할모델에서 평등한 성역할모델로의 변화가 젊은 세대에서 더욱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성역할모델의 변화를 반영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전통적 성역할 모델을 거부하는 젊은 Y세대 여성이 결혼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돌봄 전담 역할만 하는 것

으로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과 비교하면서 세대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행복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지만, Y세대의 행복수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Y세대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분법적 성역할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성역할태도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과 가정이라는 두가지 요구를 모두 해내야 하는 역할과중 상황에서 일과 가정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생활시간관점에서 기혼여성이 느끼는 행복수준이 세대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영향요인 또한 세대와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혼여성 대상 가족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생활시간관점에서의 기혼여성의 행복이 일과 같은 의무시간은 줄이고 여가시간과 같은 자유시간을 늘릴 때 커지는 경향성은 모든 세대에 공통적이다. 하지만 Y세대의 경우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행복수준을 좌우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성역할태도의 영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기혼여성 대상 정책 수립에 있어 세대로 차별화된 접근 뿐 아니라 경제활동여부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예를들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돌봄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취업을 하지 않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는 돌봄지원정책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일자리지원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의 배분과 균형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기혼여성이 느끼는 행복의 단면을 분석해 보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효용의 총합으로써 행복을 총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척도나 독립변수인 영향요인을 구성하는데 있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후 연구를 통해 생활시간 측면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행복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를 구성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구교준 · 임재영 · 최슬기(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2) 구재선 · 서은국(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25(2), 143-166.

- 3) 권안나(2021). 1인가구의 일·여가 유형에 따른 행복수준.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15-30. DOI: 10.22626/jkfrma.2021.25.4.002.
- 4) 김난도 외(2017). 트렌드 코리아 2018. 미래의 창.
- 5) 김외숙·송혜림·조희금·김주희(2016).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3), 25-43.
- 6) 김종순·오세숙·윤소영(2016). 20-40대 직장여성의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의 관계. 여가학연구, 14(4), 67-85.
- 7) 김종순·오세숙(2018). 일과 여가균형 정도에 따른 남성 베이비부머의 여가시간, 여가생활만족 및 행복수준의 차이. 여가학연구, 16(3), 37-51.
- 8) 권진·박수빈·김진욱(2021). 한국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생명연구, 62, 97-123.
- 9) 박시내·심규호(2010). 베이비부머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통계청.
- 10) 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한울.
- 11) 서지원·기은광·고선강(2021). 한국 여성과 남성의 세대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1999-2009):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시간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53-78. DOI: 10.22626/jkfrma.2021.25.2.005.
- 12) 신아름·이상직(2021). 일·여가 인식 유형과 행복.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및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심층분석 보고서. 214-237. 국회미래연구원.
- 13) 심수진(2016).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연구, 21(3), 25-47.
- 14) 윤소영(2013).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가족자원경영학의 실천과제. 2013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 15) 은기수·조희금·송혜림·서지원·송유진·김은지·차승은(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 심층분석. 통계청.
- 16) 이기영·김외숙(200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17) 이재희·박창현·박은영·최지예(2019). 육아행복 국제 비교 연구 : 삶의 질 조사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18) 이진우·금현섭(2020). 맞벌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2(1), 34-69.
- 19) 이태진·김성아 외(202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 이현아·김주희(202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Y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71-86. DOI: 10.22626/jkfrma.2021.25.4.006.
- 21) 이현아·김은정·김유경(2022). 가사노동과 돌봄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22) 장미나·한경혜(2015). 일·가족·여가활동 시간비율로 살펴본 맞벌이부부의 역할분배유형과 유형별 이상정서경험. 가족과 문화, 27(2), 98-129.
- 23) 주은선(2016).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6(7), 75.
- 24) 차승은(2014). 유급노동시간, 시간압박감 그리고 휴식의 효과. 한국인구학, 37(3), 25-52.
- 25) 통계청(2020.07.3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1060400&bid=220&act=view&list_no=384161&tag=&nPage=1&ref_bid=에서 2023.11. 인출
- 26)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27) 한겨레(2021.09.23). 하루 5시간 이상의 자유는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12433.html에서 2023.09. 인출
- 28) 허종호(2022). 한국인의 행복과 일. 국민행복포커스 제2호. 국회미래연구원.
- 29) 홍성희·김혜연·김성희·윤소영·고선강(2008).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 신정.
- 30) John F. Helliwell, Richard Layard, Jeffrey D. Sachs, Jan-Emmanuel De Neve, Lara B. Aknin & Shun Wang(2023). World Happiness Report 2023.
- 31) OECD(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투 고 일 : 2023년 09월 26일
 ■ 심 사 일 : 2023년 10월 25일
 ■ 계 재 확 정 일 : 2023년 11월 24일